

어린이 책꽂이

▲내 얼룩무늬 뭘했니? = 자신의 줄 무늬를 잃어버린 꼬마 호랑이가 줄무늬를 찾기까지의 과정을 재미있게 그린 동화. 경쾌한 선과 여백의미를 살린 일러스트가 꼬마 호랑이 호야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느림보·7천500원)

▲내가 어른이 된다고요? = 성장이 주는 의미를 재미있고 애정 어린 시각으로 풀어냈다. 육체적 성장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주어진다. 정신적 성장은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얻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니어 김영사·8천900원)

▲레오나르도 다빈치 = 위대한 예술가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슬픔과 고뇌에 관한 이야기. 철저한 고증을 거쳐 레오나르도가 활동했던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과 배경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미래 M&B·1만원)

▲밴드 마녀와 뺑뚱주 =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꼭꼭 감춰둔 울음 소리에 귀 기울인 작품이다. 주인공 은수는 꿈 여가 저기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습관처럼 뺑뚱주를 붙여 친구들 사이에 '뺑뚱마녀'로 통한다. (한겨레 아이들·8천원)

▲싸움 말리다 금화를 만든 왕 = 어린이들이 한번쯤 가질 만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지식탐구 시리즈로, 시간과 장소를 넘나드는 탐험을 통해 아주 먼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문명 발달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보여준다. (주니어 랜덤·8천800원)

“고구려는 조공국가 아닌 중원의 패자로 군림했다”

고구려는 천자의 제국이였다 이덕일의 지음

일제 강점기에 왜곡된 대표적인 우리역사는 고구려사다. 현재 중화패권주의 시각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도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다. 식민사관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고구려 건국자를 추모왕(기원전 1세기)이 아니라 태조대왕(서기 1~2세기)이라고 깎아내렸다.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의 역대 정권에 조공을 바친 조공국가라고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가 기마민족 특유의 대륙성과 진취성을 바탕으로 중원의 패자로 군림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후한서'의 '광무제 본기'에도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학자 이덕일씨와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전문위원 김병기,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전문위원 박찬규씨 등 3명이 공동저술한 '고구려는 천자의 제국이였다'는 식민·중화사관에 맞서 고구려사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복원한 책이다. 고구려의 역사를 조망하기 위해 출간된 이 책은 왜곡된 고구려사를 바로잡기 위해 30가지 쟁점들을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되짚고 있다. 저자들은 고구려가 중국의 조공국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화자들이 중화사관에 입각한 기록들을 오독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구려 출신으

로 북위 효문제의 황후가 된 문씨의 아들이 황제에 등극한 것은 고구려의 강력한 힘을 암시하는 방증이다. 이런 고구려의 정치적 파워와 자긍심은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태왕릉비에 “고구려가 천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는 데 이른다. 광개토태왕릉 비문의 첫 머리에는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창업하신 터다. 왕은 북부여에서 오셨으며, 천제의 아들(天帝之子·하늘 신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河伯·물의 신)의 딸이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셨는데...”라고 나와 있다. 저자들은 또 고구려의 군사력이 강했던 이유, 무려 94년간 재위한 태조대왕, 강성했던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배경, 고구려인의 천하관, 대외사위 풍습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특히 고구려의 영웅이었던 연개소문이 흥족하고 잔인한 독재자로 전해진 이유 등을 밝혀냄으로써 중화관으로 왜곡된 고구려사를 바로 잡는다. 부록으로는 '답사기로 읽는 고구려사'를 주제로 한 두편의 답사가 실려있다. 저자들은



광개토태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아들 장수왕이 중국 길림성 집안현에 세운 광개토태왕릉비.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오녀산성, 장수왕릉, 광개토태왕릉 등 고구려의 자취를 구석구석 찾아 안내해준다. 1950년대만 해도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고구려의 성이 중국인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아픈 역사의 현장, 동북공정이 심화되면서 중국 당국이 일부 고구려 산성을 대대적으로 발굴, 중국식으로 복원한 모습들은 올바른 역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역사의 아침·1만6천5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 인생 한 권의 책

이민규 '1%만 바뀌도 인생이 달라진다'

현재의 나는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내가 해온 생각과 행동이 앞으로 지속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자문해봐야 한다. 그렇지만 지난 일들을 돌아보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된다. 현재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져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겪는 문제들은 그것을 만들어낸 당시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다르게 생각해야 문제의 실태를 풀어갈 수 있다. 다른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나의 책상에 아직도 두고 수시로 보는 책이 있다. 심리학 박사 이민규 교수가 쓴 '1%만 바뀌도 인생이 달라진다'(다산출판사)라는 책이다. 이 책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안의 가능성을 찾아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은 현학적이지만 난해하지 않은 사례들을 통해 셀프 리모델링을 위한 조언을 해준다. 지난 3월 나는 처음으로 도입된 국가보훈처의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 병무청에서 광주지방보훈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첫

다른 생각으로 미래 바라보기



직위공모 청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의욕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새로운 조직 안에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의욕이 앞서면서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다. 그때 이 책에서 찾은 문구들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작은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출발하기 전에 갈 곳을 확실히 정한다.” 많은 사람은 목표라고 하면 거창하고 원대한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목표를 설정하지도 달성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달성 가능성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문제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었다. “집시를 닦더라도 열정과 헌신을 다하라.” 보훈 업무의 특성상 많은 시민들을 상대하고 그들의 불만과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작은 부분 하나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대하는 모습이 보훈청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은 좋은 반응을 보내주었다. 또한 전화 응답 방식에도 작은 변화를 주었다. “감사합니다”라는 응답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로 바꿨다. 전화를 받는 본인의 다짐이기도 하고, 민원인들에 대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방법으로 생각한 작은 변화다. “함께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다. 그러나 함께하면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헬렌 켈러의 말도 내게 자극을 주었다. 나는 모든 조직이 성공하려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조직의 비전 달성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외톨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든지, '불발장군은 미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노력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봤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다. 문병민 (광주지방보훈청장)



신화로 남겨진 '인간 케네디'의 삶

케네디 평전 로버트 델릭 지음

미국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매년 1, 2위를 다투는 '존경받는' 지도자 존 F. 케네디를 다룬 평전이 처음으로 국내에 번역·출간됐다. '케네디 평전'(전 2권)을 쓴 미국 대통령 연구의 권위자 로버트 델릭 보스턴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는 '인간' 케네디를 그려냈다. 신화로만 남겨진 그의 삶을 꼼꼼하게 살필 기회를 준다. 1권은 탄생에서 대통령 당선까지를 다룬다. 저자는 케네디의 내면과 성격을 재구성하기 위해 증조부 대의 아일랜드 이민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권은 대통령 시절부터 암살까지 이야기로, 사안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합리적 결단을 내렸던 그의 이성적 기질을 읽을 수 있다. 부자집 도련님, 회대의 바람둥이, 뉴프런티어의 선구자 등 케네디를 따라다니는 여러 수식어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푸른숲·1권 3만원, 2권 3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새로운 한계 도전하는 알피니스트 세계

알피니즘 도전의 역사 이용대 지음

“등반은 자기 극복의 역사다.” ‘한국 등산교육의 선구자’이자 칠순(七旬)의 현역 산악인 이용대 코오롱등산학교장의 등산본이다. 그가 세계 등산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을 시도한 '알피니즘 도전의 역사'를 펴냈다. 태초 이래 산은 늘 인류 곁에 있었지만 인간이 그 미지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도전한 것은 불과 200여년 전, 몽블랑 정상이 열리며 부터였다. 저자는 등산의 여명기로부터 알프스 황금시대~은시대~철시대를 차례로 조명하고, '최초의 8,000m' 안나푸르나에서 시샤랑마 등정까지 히말라야 거봉 원정대원들이 흘린 땀과 고루, 좌절과 희열을 알알이 담았다. 또한 라인홀트 메스너로부터 시작된 무산소 등정과 알파인 스타일의 속공, 등로주의 등 새로운 한계에 도전하는 알피니스트들이 추구하는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알피니즘을 빛낸 선구자들'과 '세계 등산사 연표'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미온틴북스·3만원)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roamin Sepleus skin care products. The ad features a smiling couple and text promoting skin health during summer. Key text includes: '여름엔 특히 아로나민 씨플러스 피로는 풀고 피부는 건강하게!', '여름엔 두터워와 강한 자외선으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and '아로나민 씨플러스'. The ad also lists various skin care products like '아로나민', '아로나민 씨플러스', and '아로나민 씨플러스 크림'.